



최희섭 “방망이로 말하겠다”

연봉 1억5000만원 재계약 전지훈련 합류… “2009 영광 다시한번”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빅초이' 최희섭이 1억5000만원에 재계약을 끝냈다. 지난 시즌 1억7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2년 연속 연봉 하락이다.
 최희섭은 지난해 선수단 무단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으며 4억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연봉이 대폭 삭감됐다. 2012시즌에도 성적에 실패했다. 부상에도 고전한 최희섭은 80경기에 나와 0.252의 타율과 함께 7개의 홈런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2년 연속 삭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탈소통으로 지난해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최희섭은 올 시즌에도 연봉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캠프 참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캠프 출발을 앞두고 극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20일 선수단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최희섭은 계약을 마치고 “그동안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애

◎ 최희섭 최근 4년간 성적 및 연봉

	2009	2010	2011	2012
타율	0.308	0.286	0.281	0.252
타점	100	84	37	42
홈런	33	21	9	7
연봉	2억원	4억원	4억원	1억7000만원

리조나 및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에 열중해 올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최희섭의 목표는 'Again 2009'다.
 최희섭은 “올해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 팀 우승이 우선이다. 개인적인 목표도 그래서 2009년이다. 2009 시즌 같은 활약을 하면서 이번 가을에는 좋은 결실을 맺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희섭은 2009년 131경기에 출전해 0.308의 타율로 100타점을 수확하며 팀의 중심타자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상현(36개)과 홈런왕을 놓

고 집안 싸움을 펼치는 등 33개의 홈런포를 날려 KIA의 다이내미트 타선을 이끌었다.
 V10의 중심에 서며 2009년 최고의 한해를 보냈지만 이후 계속된 부상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지난해는 선수단 이탈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빅 리거'의 자존심을 구겼다.
 지난 가을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연봉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기도 했다.
 최희섭은 “부상으로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지금은 아픈 곳도 없고 컨디션이 괜찮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정상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 2009년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아한 백핸드 세르비아 출신 이바노비치가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4회전에서 라드반스카(세계랭킹 4위·폴란드)의 공을 백핸드로 받아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계 미국인 햄프턴 호주오픈 女 16강 실패

한국계 미국인 제이미 햄프턴(63위)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3000만호주달러) 여자단식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햄프턴은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여자단식 3회전에서 세계랭킹 1위 빅토리아 아자렌카(벨라루스)를 상대로 잘 싸웠으나 1-2(4-6 6-4 2-6)로 졌다.
 1세트 초반 게임스코어 1-5까지 끌려간 햄프턴은 이후 대반격에 나섰다. 연달아 세 게임을 따내 4-5까지 따라붙은 가운데 자신의 서브 게임을 맞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1세트를 내줬다. 2세트 들어 아자렌카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다시 경기 주도권을 틀어쥔 햄프턴은 자신의 서브 게임을 잘 지켜 2세트를 따냈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햄프턴은 3세트에서도 아자렌카의 서브 게임을 따내 2-1까지 앞서나가 대어를 낚는 듯 했지만 이후 내리 5게임을 내주며 세계랭킹 1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연합뉴스

“올림픽 금 딸 수 있게 선수육성 최선”

강경환 광주레슬링협회장

“광주 레슬링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취임한 강경환(63·송광중 교장) 광주광역시 레슬링협회 회장은 “레슬링은 해방 이후 올림픽대회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자랑스러운 종목”이라며 “비경건이지만 광주, 나아가 우리나라 레슬링선수들이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선수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신임 회장은 “지난 2010년 송정중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레슬링 창단을 계기로 레슬링과 인연을 맺게 됐다”며 “이후 각종 전국 규모대회를 참관하며 레슬링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돼 전국 지도자 및 심판관습을 받게 됐



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송정중 교장 재임 시절 체육 중점 학교로 만든 후 레슬링을 비롯해 하키, 골프팀을 잇따라 창단시켰다. 이러한 학교의 변화이후 강 회장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체육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임을 새삼스레 깨닫게 됐다.
 순천 출신인 강 신임회장은 지난 1969년 완도 청산중 교사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사, 연구관, 송정중 교장 등을 역임하며 40여년간 교육계에 종사했으며 오는 2월 28일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타이거즈 ‘연봉킹’ 이범호 4억3500만원

KIA 연봉 협상 마감
 인상 33명·삭감 12명



이범호 안지홍 김진우 김상훈
 최희섭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의 2013시즌 협상 테이블이 마감됐다.
 KIA는 지난 19일 최희섭과 2000만원 깎인 1억5000만원에 계약을 하면서 올 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과의 재계약을 끝냈다.
 4강 탈락으로 2012시즌을 마감했지만 33명은 연봉 인상의 기쁨을 누렸다. 윤석민 등 3명은 연봉이 동결됐고, 김상훈 등 12명은 연봉이 깎였다. 두 외국인 투수 앤서니와 소사의 연봉도 올랐다. 앤서니는 30만달러에서 37만5000달러, 소사는 21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인상됐다.
 부상으로 지난해 9경기 출장에

투수 박지훈은 170.8%의 인상률과 함께 6500만원(4100만원 인상)에 도장을 찍으며 팀 2년차 최고 인상액 기록을 세웠고, 외야수 이준호도 26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연봉이 수직 상승하며 따뜻한 겨울을 맞았다.
 내야수 박기남이 3000만원 인상과 함께 1억을 받으며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하는 등 KIA의 역대 연봉자는 모두 14명이다.
 1억7000만원에 재계약을 끝낸 포수 김상훈은 47.7%라는 삭감률을 기록하며 팀 최다 삭감(1억5500만원)의 불명예 주인공이 됐다. 투수 양현종은 5000만원 삭감된 9000만원으로 역대연봉자 대결에서 이탈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U-20 아이스하키 대표팀 세계선수권 준우승

20세 이하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13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했다.
 윤성연(연세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대회 디비전 II 그룹 B 마지막 경기에서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3-8(0-4 2-2 1-2)로 졌다.
 전날까지 4연승으로 에스토니아와 공동 1위를 달리던 대표팀은 결국 유

럽의 강호에 잡혀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준우승에 그치면서 내년 대회에서 디비전 II 그룹 A로 승격할 기회도 놓쳤다.
 대표팀은 1퍼레이드에만 4골을 허용해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날 경기의 수훈선수로는 이호성(연세대)이 선정됐으며 대표팀의 대회 최고 선수에는 이동근(연세대)이 뽑혔다.
 /연합뉴스



“2015 광주U대회 우리가 주인공”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나주 종합골드스파에서 대회 분위기 확산과 대학생네트워킹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달컴 www.jeju.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 2일자 오솔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 3일자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사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2월28일까지 적용됩니다.(선예약기간 3만원추가)

태백산 눈꽃축제 1박2일 ₩159,000원
 커피박물관/설악산/낙산사/정동진/석탄박물관/태백산 눈꽃축제장
 출발일 1월26일, 29일, 30일, 31일 / 2월1일, 2일
 숙소: 낙산-메리텔콘도(5인1실 이용기준) 2-4인실사용시 요금추가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 ₩95,000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에서 즐기는 스키
 포함사항: 왕복28인승버스, 리프트이용권, 렌탈50%할인권
백두대간 선지령 풍차길 눈꽃트레킹 ₩45,000원
 대관령기상대 - 양떼목장 - 통진중개소 - 동해바다조망
 - 정상(1,157m) - 하산 4-5시간 트레킹
강릉 안목항 커피거리 + 커피박물관 ₩60,000원
 대한민국 최초 커피박물관 관람 및 체험관광 안목항 커피거리 자유시간
출발일 1,2월달 매주 토요일/일요일
 1월 19, 20, 26, 27일 2월 2,3,9,10,16,17,23,24일
 협찬: 사랑광방부어